

“동북아의 허브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일조할 터”



▲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맨 오른쪽), 이상호 연합회장, 김명제 인천 협의회장, 김병오 편집국장(시계반대방향) 환담 장면

본지는 지난 9월 21일 09시 인천광역시장실에서 안상수 시장을 만나 인천시의 환경정책과 향후발전 과제를 들어봤다.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인천시의 현안사항과 비전을 질의 응답식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대담=김병오 편집국장

♣ 바다를 끼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환경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의 일반 현황 및 소속 부서의 업무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먼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우리 인천에서 전국 5만여 환경 기술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와 '제2회 환경 기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와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특히, 10월 10일은 오염물질 10% 저감운동과 기술력 10% 향상을 위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이 날을 『환경 기술인의 날』로 지정 기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환경 현장의 파수꾼으로서 “지속 가능한 환경기술의 발전주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 오염 예방에 앞장서서 매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시 본청의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환경보전과, 폐기물자원과 공단환경관리과, 물관리과, 녹지조경과가 있으며, 가좌·송기·운북·강화·송림·울도 등 환경사업소, 그리고 동부·서부공원, 녹지관리 사업소 등 5개과 9사업소 총 380명의 공무원이 우리시 주요 시정 목표인 “환경도시 지향” 달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면, 환경보전과에서는 환경보전정책을 수립 하고 민간환경단체 지원, 환경기술전 개최, 환경백서 발간, 대기 및 악취, 자동차오염, 실내공기질 관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폐기물자원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자원의 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공단환경관리과에서는 7개 산업단지 배출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관리과에서는 하천 및 지하수 관리, 분뇨 및 정화조, 축산 폐수, 상·하수도, 해양환경 업무를 추진하고, 녹지조경과에서는 300만그루 나무심기 및 녹지조성,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6개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 및

분뇨처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대공원 등을 조성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인천시의 환경분야 업무 중 주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중점 추진사업은?

▲ 환경분야 업무 중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대기개선과 녹지조성 사업이 앞으로 우리시 환경분야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할 주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기오염 취약지역인 인천항과 남동공단, 서구지역과 수도권매립지 등 4개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정, 집중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및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집중 추진으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장·건설 공사장 등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과 총량관리제 도입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 살수차량을 확대 투입하는 한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기개선 실천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저감대책 추진으로 시민체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지분야에 있어서는, Green 인천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시민 1인당 1평 공원이 제공되도록 300만평 공원조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학교 공원화사업, 생활권 도심 숲 조성사업 등 녹지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시는 해상 물동량이 많은 항구도시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해양투기 및 해양 오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우리 인천광역시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 전진기지로서 그 중요성과 함께, 늘어나는 각종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물류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항만 등 물류 인프라와 함께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인천 연안에서 행하여지는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기름, 세정수 등 유해 물질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관계부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양오염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실시간 해양환경 자동측정망을 설치·운영 하는 등 해양환경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연안 수질 개선을 위하여 서울, 경기도와 협력하여 매년 50억원을 투입하여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조사 및 관리사업, 해양배출 폐기물 감축 정책을 정부 목표치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항행 선박은 물론 인천연안에서의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체계 및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처 시스템 확립, 지속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국인 휴식처로서의 쾌적한 인천 앞바다가 되도록 해양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하고 있어 중국의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에 있습니다. 대기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을텐데 인천시의 대기관리 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인천시의 대기관리 정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기 질 개선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행정·환경단체·시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푸른 하늘 2014 추진단』을 구성하여 환경친화 및 대기 개선 운동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연계하여 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공조 추진할 계획이며, 이 시행계획에는 지역 배출허용총량제 도입과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 대형사업장 총량관리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및 도시관리 등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다양한 대기개선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선진 OECD 국가수준의 대기환경 기준에 근접하도록 대기질 -15point 줄이기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심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공해저감을 위하여 2010년까지 시내버스 전체 총 1,761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로 현재까지 67%인 1,170대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였고, 2014년 까지 특정경유차 약 17만대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점차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심내 시정장애 및 시민 체감환경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도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하여, 먼지발생 취약도로 100개노선 238.7km를 『Clean Road』로 지정하여, 고압살수차 22대를 집중 투입하는 민간 위탁운영 시범사업과 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 고속도로 공해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군·구 등과 연계하여 관내 보행 및 이면도로, 가로녹지대에 대한 물청소 확행으로 도로에 퇴적된 미세 먼지를 제거하고, 도로굴착 일정 조정 및 사후관리 강화, 보도블럭 정비 및 선풍기 등으로 도로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우심지역인 항만과 건설현장에 대한 먼지저감 특별 관리를 위하여, 항만내 사료 및 해사업체 감시카메라 설치, 고철 부두 분무식 살수시설 운영, 월 2회 항만내 도로 물청소 실시, 상설 단속반을 활용한 화물차량 매연단속 및 과적, 덮개 미설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세륜·세차시설과 방진벽, 방진망 등 엄격한 시설기준 적용과 공사장 출입구 수시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천시 서구 지역에 전국의 반이상 수탁폐수처리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빈번하고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대책 방안이 있다면?

▲ 전국 65개의 수탁폐수처리업소 중 우리 인천 서구지역에 34개소 인 52%가 밀집 위치하고 있어 악취관련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는 환경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악취발생이 적은 폐수처리 방식으로 개선토록 하여 자부담 약 260억원을 들여 11개업소가 시설개선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24일 서구지역의 서부지방산업단지, 석남·원창동 일반공업지역, 수도권매립지 및 남동구의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4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악취발생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해 오고 있고, 악취배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 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2007년 1월까지의 전 사업장이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07년부터는 악취를 배출하는 영세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 보다 40%이상 오염물질을 줄여서 배출하는 경우 악취개선 보조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연차별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매년 악취에 대한 체감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송도 신도시의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으로 이 지역은 최첨단 환경시설 위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반면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남동공단은 상대적으로 환경시설이 열악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시의 남동공단 환경관리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우리시에서는 남동산업단지를 환경 친화적으로 재생하고 경제자유 구역의 첨단산업 배후단지로 육성하고자, 기존산업과 첨단산업과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성장효과와 도시균형 발전을 목표로 생태산업 단지(Eco Industrial Park)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 인프라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 사후환경관리에서 사전환경관리체제로 전환, 기업경영과 환경보전의 WIN-WIN 환경지원체계 확대, 환경개선자

금 이자지원의 전국 최초 시행 등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체제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부터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 관리 취약업소 10%규제, 90%지원” 시책이 환경부의 2005년도 전국 배출업소 지도점검 평가에서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남동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IT, BT 등 첨단업종의 유치, 국·내외 R&D형 핵심 산업단지 조성, 공통 물류사업을 통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취약업종에 대한 산업단지내 입주 제한을 엄격히 추진함은 물론, 민·관 협력 상설 환경감시단을 활용한 24시간 원격 환경감시망 운영과 기업자율환경협업체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 관리할 계획입니다.

♣ 인천은 어느 지역보다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는?

▲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프로젝트는 하천 살리기 추진단 구성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민·관 합동 하천살리기 중합계획입니다.

즉, 인천의 주요 하천인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테마가 있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 및 정화활동, 생태체험 등 민간환경단체 활동과 체험환경 프로그램, 환경홈다터 등에 총 1억9천만원,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에 3억2천만원,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3억7천만원, 하천살리기 추진단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시민이 함께 참여 하는 환경보전 및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